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와 심리적 불편감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Discomfort on Antenatal Attachment of Pregnant Couples in Their Third Trimester of Pregnancy

채진영(Jin-Young Chae), 정혜정(Hye-Jeong Chu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discomfort on antenatal attachment of pregnant couples in their third trimester of pregnancy. The subjects were 182 couples in J provinc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first wave of the Korea Attachment Longitudinal Study (KAL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percentages, Pearson's correlation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models using SPSS 20.0.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dependent *t*-test showed that the mean scores of pregnant women's self-differentiation were lower than their spouses in all subscales except emotional cutoff, and higher than in all psychological discomfort subscal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tenatal attachment 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but the pregnant women significantly spent more time thinking about the fetus than their spouses. Second,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models revealed that pregnant women's emotional cutoff in self-differentiation influenced the most on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antenatal attachment. Among subscales of their spouses' self-differentiation, only emotional reactivity had an impact on quality of antenatal attachment, and fusion with others had the most impact on quantity of antenatal attachment. Among the pregnant women's and their spouses' psychological discomfort subscales, only depression influenced each quality and quantity of antenatal attachment. This is the very first and only study in which the impact of the pregnant couples' self-differentiation on antenatal attachment has been examined.

▲주제어(Key words):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 심리적 불편감(psychological discomfort), 태아애착(antenatal attachment), 임신 (pregnancy)

I. 서론

1960년대 초 J. Bowlby에 의해 애착이론이 처음 소개된 이래로 현재까지도 '애착'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학계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Bowlby, 1960, as cited in Fonagy, 2001). 그나마 가장 근접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I. Bretherton(1985)에 의해 대략적으로 정의된 '특정 상대에

• 본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A8022180)
본 논문은 2013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Hye-Jeong Chu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and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nbuk, 561-756, Republic of Korea, Tel: +82-63-270-3828, E-mail: chunghj@jbnu.ac.kr

대한 정서적 유대(emotional tie) 또는 심리적 결속(psychological bond)이라 할 수 있다(Condon, 1993). 그간의 애착 연구는 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이 대부분이었는데, 생후 최초로 맺는 사회정서적 유대관계 대상인 부모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경험의 질에 따라 애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개념 또는 대인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보편적인 의견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착관계는 애착대상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애착 역시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주어 이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애착 관계는 양방향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과 관련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착을 측정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인생에 있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변화인 임신을 통해 여성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정서적 유대감과 감정을 갖게 되고,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감정이 더욱 강해지며 태아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결속을 통해 태아와 상호작용을 하고 애정을 나타내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태아애착이라고 한다(Cranley, 1981). 우리나라의 전통육아에서 임신기간 동안 태교를 강조하고 정성을 기울여 왔던 것 역시 태아에 대한 애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출생 전이라 태내에 있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태아 사진 또는 태아의 움직임은 직접 느끼는 태동을 통해 태아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태아애착을 더욱 발달시키게 된다(Bloom, 1995; Fuller, 1990). 태아애착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아기에 대한 태도나 신념이 아닌 주관적인 감정인 '사랑'이며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모경험이다(Condon, Corkindale, & Boyce, 2008). 예비부모로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와 정서적 관계, 즉 애착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은 성공적이고 이상적인 임신기 심리적 적응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일 것이다(Van den Bergh & Simons, 2009). 따라서 부모-자녀간 애착관계는 출산 이후부터가 아닌 임신기부터 시작되므로 이 관계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아애착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임신부가 임신기에 태아와 나눈 안정적인 정서적 교감을 통해 형성된 높은 수준의 태아애착은 출생 이후 신생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Siddique, Haggliiff, & Eisemann, 2000; J.-Y. Yoon & M.-H. Kang, 2004).

임신한 여성만 태아애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역

시 임신한 아내와 비슷한 형태로 태아에게 애착을 가지게 되어 부모-자녀 간에 형성되는 최초의 애착을 통해 정서적 상호작용을 시작한다(Condon, 1993; Weaver & Cranley, 1983). 그러나 임신부와 배우자의 태아애착의 차이에 대해 보고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임신부가 배우자보다 태아애착이 높았다는 연구(Lorensen, Wilson, & White, 2004; Mercer, Ferketich, May, De Joseph, & Sollid, 1988; Ustunsoz, Guvenc, Akyuz, & Oflaz, 2010)와 임신부가 배우자보다 태아애착이 더 낮았다는 연구(White, Wilson, Elander, & Persson, 1999), 임신부와 배우자의 태아애착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Wilson et al., 2000) 등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공존한다. 출산 후 부모-영아의 애착을 예측할 수 있는 태아애착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간호학 분야에서 어머니-태아애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M.-K. Kwon & K.-S. Bang, 2011; M. Kim, 2014), 아버지-태아애착을 살펴본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 근래에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자녀의 발달 및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 및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나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태아애착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태아애착은 예비어머니 뿐만 아니라 예비아버지 역시 자신이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부모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갖는 심리적 결속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임신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태아애착을 동시에 살펴보고 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임신한 부부의 태아애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변인 중 하나는 자아분화이다. 이는 M. Bowen의 가족체계이론(1978)의 핵심개념으로 이성과 감정의 분리를 상징하는 개인의 심리내적 차원과 의미있는 타인(원가족)으로부터 자기가 분리되어 기능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차원을 의미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Kerr & Bowen, 1988). 즉 자아분화는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접촉을 함과 동시에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이성과 감정의 분리가 가능한 동시에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면서도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균형적인 모습을 보인다(H. Chung & E.-K. Cho, 2007). 또한 자율기능의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여 관계과정에서 자기결정력이 높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덜 의존적이지만, 단순히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분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애

착과 연결감, 친밀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분화 수준이 낮으면 개별성은 잘 발전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연합성 욕구는 강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더 많이 불안정해하며 변화에 적응하려는 능력이 적다(Kerr & Bowen, 1988). 이러한 관점으로 미루어 볼 때, J. Bowlby의 애착 이론과 M. Bowen의 자아분화이론은 원가족과의 경험과 현재의 친밀관계와의 관련성, 부모-자녀 관계의 신뢰성, 상호작용관계, 전생애 발달, 세대간 대물림, 친밀성, 독립성 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유사하다(Y. I. Kim, 2006; Kozłowska & Hanney, 2002; E. Park, 2002; Skowron & Dendy, 2004). 자신의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정서관계를 통한 애착 경험에 의해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애착 대상을 안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애착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는 독립성을 발달시키며, 타인과의 애착 관계 역시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전생애에 걸쳐 발달하며 세대간 전이가 나타난다. 자아분화 역시 친밀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능력이며, 전생애에 걸쳐 발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애착과 자아분화의 관계를 살펴본 S.-H. Cho and H. Chung(2009)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청소년기 때 원부모와 형성한 애정적 유대관계와 자신의 청소년 자녀와 형성한 애정적 유대관계의 세대간 전이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모두 자아분화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아분화의 수준을 높이면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관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자아분화가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J. Kim, 2007)가 있으나 외국의 경우, 하위요인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있어 정서반응, 정서적 융합 등의 하위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고(Peleg & Yitzhak, 2011), 정서적 반응은 여성이 높으나 자기입장은 남성이 더 높고, 타인과의 융합은 성별에 따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행연구를 고찰한 연구도 있다(Miller, Anderson, & Keala, 2004). 국내에서도 자아분화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임신한 부부의 자아분화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 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임신한 부부의 자아분화는 성별의 차이가 있고 태아애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를 살펴본다면 출산 이후

부모-영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태아애착을 예측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심리적 불편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예비부모는 임신이라는 일생에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인해 부모가 된다는 설레임과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한다(Van Bussel, Spitz, & Demyttenaere, 2009). 특히 불안은 임신과 출산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며, 우울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Bastani, Hidamia, Kazemnejad, Vafaei, & Kashanian, 2005; Ross, Evans, Sellers, & Romach, 2003). 임신한 여성이 우울감을 느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태아의 정신건강에 1.3배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Pearson et al., 2013), 태아의 맥박이 빨라지며 성장이 지연되어 저체중을 초래하는 등 신체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ield, Diego, & Hernandez-Rief, 2006). 이 뿐 아니라 태아에 대한 애착도 감소하게 하여 임신 후반기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의 태아애착을 비교한 결과,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에 비해 태아애착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Farland et al., 2011). 이렇게 임신 중 낮은 태아애착은 태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초래하고, 출산 이후 어머니-영아 애착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Hart & McMahon, 2006; Lindgren, 2006; Yarcheski, Mahon, Yarcheskui, Hanks, & Cannella, 2009). 태아애착과 임신부의 우울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Alhusen, 2008; Cranley, 1981)가 보고되고 있는 반면, 불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K. F. Gaffney(1986)은 태아애착과 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확인하였으나, F. Stanton and S. Golombok(1993)은 상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안은 우울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이고, 우울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므로 임신 중 느끼는 불안 역시 태아애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임신은 임신부 뿐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남성들에게도 일생동안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임신을 통해 남성들 역시 배우자의 신체를 통해 태아와 교감을 나누며 자녀의 출생에 대한 기대와 부모가 된다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남성들 역시 임신부와 마찬가지로 임신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이어져왔다(Condon, 1993; Wapner, 1976; Weaver & Cranley, 1983).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임신으로 인해 임신부가 경험하는 신체적인 변화를 배우자도 함께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오래전에 보고되었다(Fawcett &

York, 1987; Threthowan & Colon, 1965). 실례로 최근 영국의 한 언론은 아내가 임신한 예비 아버지들 가운데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바뀌어 자신도 임신한 것처럼 입덧을 하고 식욕이 증가하며 피로 증가와 우울증 등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슴까지 발달하는 쿠바드증후군(couvade syndrome)을 겪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Arkeel, 2014). 이렇듯 임신은 더 이상 여성의 인생에만 중대한 변화가 아닌, 아버지임(fatherhood)을 준비하는 남성에게도 중요한 생애사건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신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임신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은 태아애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매우 미흡하므로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부와 배우자의 심리적 불편감이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국내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므로 임신기 성별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의 차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들을 종합하여 보면, 임신 후반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자아분화, 심리적 불편감, 태아애착은 부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부부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와 심리적 불편감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 심리적

불편감, 태아애착은 임신부와 배우자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와 심리적 불편감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임신부와 배우자의 경우 각각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J 지역의 산부인과 3곳과 인터넷 동호회 2곳에 모집공고를 내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임신 28주 이후의 182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애착은 발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임신이 진행될수록 태아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Fisher, Hammarberg, & Baker, 2008; Hjelmstedt, Widstrom, & Collins., 2006; Yarcheski, et al., 2009), 태아애착을 어느 정도 발달시켰을 것으로 예상한 임신 후반기의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임신부의 경우, 31~35세가 45.9%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4년제 졸업자가 전체 50.3%를 차지하였으며, 전업주부인 경우가 36.7%였다. 배우자의 연령 역시 31~35세가 51.1%로 가장 많았고, 4년제 졸업자가 전체 54.4%이었으며, 직업별로는 기술직 및 사무직에 종사자가 55.0%로 가장 많았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200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rticipants

(N=182)

	Range	Pregnant women	Spouses	Range	N(%)	
		n(%)	n(%)			
Age	Under 25	5(2.8)	0(0)	Monthly family income (million)	Less than 1	3(1.6)
	26-30	65(32.5)	26(14.3)		1.01-2	94(51.6)
	31-35	84(45.9)	93(51.1)		2.01-3	46(25.3)
	36-40	25(13.8)	46(25.3)		3.01-4	19(10.4)
	Over 41	3(1.7)	17(9.3)		4.01-5	11(6.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5(8.3)	23(12.6)	5.01-6	5(2.8)	
	Community college	49(27.1)	36(19.8)	More than 6.01	4(2.2)	
	Four-year college	92(50.3)	99(54.4)	Marriage period (year)	Less than 2	71(39.2)
	Beyond graduate school	26(14.4)	24(13.2)		2-4	54(29.9)
Job	Technician, officeperson, etc.	33(18.3)	100(55.0)		4-6	38(21.0)
	Profession (law, medical, etc.)	15(8.3)	3(1.6)	6-8	13(7.2)	
	Education field	40(22.2)	10(5.5)	More than 8	5(2.7)	
	Own business	6(3.3)	42(23.1)	Planning pregnancy	Yes	104(57.1)
	Farming / stockbreeder	1(6)	4(2.2)		No	77(42.9)
	Student	5(2.8)	1(6)	Wantedness of pregnancy	Spouse only	10(5.5)
	Full time home maker	67(36.7)	1(6)		Women only	17(9.3)
	The others	14(7.8)	21(11.4)		Both	155(85.2)

만원 이하가 전체 53.2%였으며, 조사 당시 결혼 기간이 2년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39.2%였다. 44.1%는 첫 임신이었고, 계획된 임신인 경우는 57.1%이었으며, 85.2%가 부부 모두가 원했던 임신이었다.

2. 측정도구

1) 태아애착

J. T. Condon(1993)이 어머니용(Maternal Antenatal Attachment Scale: MAAS)과 아버지용(Paternal Antenatal Attachment Scale: PAAS)으로 개발한 태아애착 도구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도 태아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 S. Cranly(1981)의 어머니용 태아애착 측정도구(Maternal Fetal Attachment: MFA)는 24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이 도구를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MFA는 다수의 문항들이 태아에 대한 임신부의 애착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임신상태에 대한 태도 또는 모성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어서, '애착'의 측면을 측정했다기 보다는 '관계'를 측정한 것이라는 주장하였고, 또한 도구 개발에 필요한 요인분석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를 제기하였다(Mercer, et al., 1988; Van den Bergh & Simons, 2009).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J. T. Condon(1993)은 요인분석을 통해 MAAS 19문항과 PAAS 16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첫 임신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상의 임신인 경우에도 적합하며, 임신 상태 또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닌 태아에 대한 감정, 태도 및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애착중심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도구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등 애착의 질, 즉 태아에 대한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MAAS 11문항, PAAS 10문항)과 '나는 뱃속의 아기 생각을 자주한다' 등 애착을 느끼는 모드에서 태아를 생각하는 시간의 양, 즉 태아에게 집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MAAS 8문항, PAAS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태아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 계수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임신부의 경우 .82, .83 이고, 배우자의 경우 .79, .79이었다(Table 2).

2) 자아분화

H. Chung and E.-K. Cho(2007)이 개발한 한국형 자

아분화척도는 가족중심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적 가치와 우리 문화의 언어표현방식을 반영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사람들은 내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말한다' 등 개인이 타인이나 외부환경의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인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9문항,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등 명확하나 자아감을 가져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 압력을 받았을 때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인 자기 입장을 나타내는 8문항, '내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등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갈등처리 방식, 의견 등이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인 타인과의 융합을 나타내는 7문항,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내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한다' 등 친밀한 관계맺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방어하려는 행동, 또는 친밀한 관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인 정서적 단절을 나타내는 5문항, '배우자가 나를 비난하면 한동안 마음이 괴롭다' 등 개인의 자존감이나 정서체계가 타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는 정서적 융합을 나타내는 9문항 등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는 0점에서 5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 관련 문항들은 역코딩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의 수준은 낮은 반면, 자기 입장을 수준은 높아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Cronbach의 α 계수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임신부의 경우 .85, .78, .79, .71, .76이고, 배우자의 경우 .86, .72, .77, .80, .77이었다(Table 2).

3) 심리적 불편감

L. R. Derogatis(2001)이 제작한 간이정신진단검사(Brief Symptom Inventory-18, BSI-18)를 K.-P. Park, S.-W. Woo and M.-S. Chang(2012)이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성을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Parloff, Kelman and Frank의 불편감 척도(discomfort scale, 1954)을 토대로 L. R. Derogatis, R. S. Lipman, K. Rickels, E. H. Uhlenhuth and L. Covi(1974)가 최근 7일간 경험한 심리적 불편감 및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ymptom Checklist-90(SCL-90)의 단축형이

다. ‘숨쉬기가 거북하다’ 등의 신체화, ‘기분이 울적하다’ 등의 우울,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등의 불안을 나타내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전혀 없다’를 1점, ‘아주 심하다’를 4점으로 Likert 척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이 많고, 우울과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 계수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임신부의 경우 .82, .83, .87이고, 배우자의 경우 .74, .77, .77이었다(Table 2).

3. 연구 절차

2012년부터 J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한국애착종단연구(Korea Attachment Longitudinal Study: KALS)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J 지역의 산부인과 3곳과 인터넷 동호회 2곳에 연구의 목적과 참여 신청서를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참여자들에게 C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거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우선 7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이 애매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등 의미전달이 불분명한 문항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참여자들이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실험실을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연구보조원이 현장에서 수거하였으

며, 소정의 참가비가 지급되었다. 부실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4쌍의 자료를 제외한 182쌍의 자료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신 후반기 부부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임신부와 배우자간의 자아분화, 심리적 불편감, 태아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Peasons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모델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살펴보았고, 잔차 간의 상호독립성에 관한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 값으로 판단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 심리적 불편감, 태아애착의 차이

Table 2. The Number of Items and Cronbach's Reliability Coefficient

Variables	Subscales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Antenatal attachment	Pregnant women	Quality	.82
		Quantity	.83
	Spouses	Quality	.79
		Quantity	.79
Self-differentiation	Pregnant women	Emotional reactivity	.85
		I-position	.78
		Fusion with others	.79
		Emotional cutoff	.71
	Spouses	Emotional fusion	.76
		Emotional reactivity	.86
		I-position	.72
		Fusion with others	.77
Psychological discomfort	Pregnant women	Emotional cutoff	.80
		Emotional fusion	.77
		Somatization	.82
		Depression	.83
	Spouses	Anxiety	.87
		Somatization	.74
		Depression	.77
		Anxiety	.77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dependent *t*-tests in Self-Differentiation, Psychological Discomfort and Antenatal Attachment of the Pregnant Women and Their Spouses (N=182)

Variables	Pregnant women		Spouses		<i>t</i>	
	<i>M</i>	<i>SD</i>	<i>M</i>	<i>SD</i>		
Self-differentiation	Emotional reactivity†	3.24	.66	3.56	.66	-4.10***
	I-position	2.77	.52	3.12	.70	-4.78***
	Fusion with others†	2.96	.59	3.27	.61	-4.36***
	Emotional cutoff†	3.72	.63	3.75	.77	-.34
	Emotional fusion†	2.35	.49	2.65	.57	-4.63***
Psychological discomfort	Somatization	1.71	.41	1.34	.36	8.01***
	Depression	1.51	.45	1.38	.37	2.55*
	Anxiety	1.55	.43	1.35	.36	4.21***
Antenatal attachment	Quality	4.17	.48	4.27	.47	-1.71
	Quantity	3.66	.60	3.48	.65	2.39*

* $p < .05$, *** $p < .001$

† Reverse coding

Table 4. Intercorrelations Between Self-Differentiation, Psychological Discomfort and Antenatal Attachment of the Pregnant Women and Their Spouses

	Self-differentiation				Psychological discomfort				Antenatal attachment	
	a	b	c	d	e	f	g	h	i	j
a. Emotional reactivity	-	.37**	.48**	.55**	.52**	-.37**	-.48**	-.53**	.36**	.18*
b. I-position	.50**	-	.47**	.22**	.25**	-.26**	-.12	-.32**	.13	.15
c. Fusion with others	.49**	.51**	-	.44**	.51**	-.29**	-.35**	-.41**	.26**	.31**
d. Emotional cutoff	.36**	.19**	.33**	-	.40**	-.33**	-.62**	-.54**	.36**	.30**
e. Emotional fusion	.57**	.42**	.65**	.36**	-	-.25**	-.25**	-.37**	.09	.01
f. Somatization	-.19*	-.16	-.11	-.18*	-.14	-	.54**	.55**	-.16	-.10
g. Depression	-.42**	-.28**	-.33**	-.50**	-.34**	.37**	-	.68**	-.50**	-.32**
h. Anxiety	-.40**	-.26**	-.32**	-.39**	-.35**	.49**	.61**	-	-.26**	-.14
i. Attachment quality	.29**	.21*	.21*	.38**	.07	-.26**	-.42**	-.29**	-	.57**
j. Attachment quantity	.19*	.28**	.15	.32**	.02	-.20*	-.33**	-.16	.68**	-

* $p < .05$, ** $p < .01$

Note. Intercorrelations for pregnant women's spouses ($n=182$) are presented above the diagonal, and intercorrelations for pregnant women ($n=182$) are presented below the diagonal.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 심리적 불편감, 태아에 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은 정서적 반응($t = -4.10, p < .001$), 자기입장($t = -4.78, p < .001$), 타인과 융화($t = -4.36, p < .001$), 정서적 융합($t = -4.63, p < .001$) 등에서 임신부보다는 배우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단절에 관해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리적 불편감의 경우, 신체화($t = 8.01, p < .001$), 우울($t = 2.55, p < .05$), 불안($t = 4.21, p < .001$)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배우자보다 임신부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 임신부가 배우자에 비해 임신 중 신체화, 우울, 불안 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태아에착의 경우 태아에게 보이는 애정의 정도는 임신부보다 배우자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태아를

생각하는 시간의 양, 즉 태아에게 집중하는 정도는 임신부가 배우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 = 2.39, p < .05$).

2.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와 심리적 불편감이 태아에착에 미치는 영향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와 심리적 불편감이 태아에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선 임신부의 경우, 정서적 융합을 제외한 자아분화의 모든 하위요인은 태아에 대한 애정 정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심리적 불편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에 대한 집중 정도에 대해서는 자아분화의 정서적 반응($r = .19, p < .05$), 자기입장($r = .28, p < .01$), 정서적 단절($r = .32, p < .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심리적 불편감에서는 신체화($r = -.20, p < .05$)와 우울($r = -.33, p < .01$)만이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 태아에 대한 애정 정도는 정서적 반응($r = .36, p < .01$)과 타인과의 융합($r = .26, p < .01$), 정서적 단절($r = .36, p < .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심리적 불편감의 우울($r = -.50, p < .01$)과 불안($r = -.26, p < .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태아에 대한 집중 정도 역시 정서적 반응($r = .18, p < .05$)과 타인과의 융합($r = .31, p < .01$), 정서적 단절($r = .30, p < .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심리적 증상의 우울($r = -.32, p < .01$)과만이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 및 심리적 불편감의 하위요인이 태아에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임신부의 경우, 자아분화 요인으로는 정서적 단절($\beta = .36, p < .001$)과 정서적 반응($\beta = .29, p < .001$), 정서적 융합($\beta = .22, p < .001$)이, 심리적 불편감 요인으로는 우울($\beta = -.42, p < .001$)만이 태아에 대한 애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밀한 관계맺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수록, 타인이나 외부환경의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개인의 자존감이나 정서체계가 타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적게 받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태아에 대한 애착 정도는 높았다. 임신부의 태아에착의 애착 정도를 설명함에 있어 자아분화는 19%($F = 11.83, p < .001$),

심리적 불편감은 17%($F = 29.82, p < .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임신부의 태아에 대한 집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분화의 정서적 단절($\beta = .35, p < .001$)과 정서적 융합($\beta = .25, p < .001$)이었으며, 심리적 불편감의 우울($\beta = -.33, p < .001$)이었다. 즉, 친밀한 관계맺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수록, 개인의 자존감이나 정서체계가 타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적게 받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태아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 집중도가 높았다. 임신부가 태아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설명함에 있어 자아분화는 18%($F = 11.38, p < .001$)의 설명력을, 심리적 불편감은 10%($F = 17.11, p < .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배우자의 경우, 자아분화의 정서적 반응($\beta = .37, p < .001$), 심리적 불편감의 우울($\beta = -.50, p < .001$)만이 태아에착의 애정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이나 외부환경의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태아에 대한 애착 정도는 높았다. 배우자의 태아 애착 정도를 설명함에 있어 자아분화는 13%($F = 20.63, p < .001$), 심리적 불편감은 25%($F = 45.73, p < .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배우자의 태아에 대한 집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분화의 타인과의 융합($\beta = .33, p < .001$)과 정서적 단절($\beta = .27, p < .001$), 정서적 융합($\beta = .28, p < .001$)이었으며, 심리적 불편감의 우울($\beta = -.31, p < .001$)이었다. 즉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된 정도가 낮을수록, 친밀한 관계맺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수록, 개인의 자존감이나

Table 5.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ith the pregnant couples' antenatal attachment as dependent variable and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discomfort a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β	R^2	adj. R^2	F	VIF	Durbin-Watson	
Pregnant women's antenatal attachment	Quality	Self-differentiation	Emotional cutoff	.27	.36	.14	.14	11.83***	1.64	1.96	
			Emotional reactivity	.21	.29	.18	.17				
			Emotional fusion	.22	.22	.20	.19				
	Quantity	Psychological discomfort	Depression	-.45	-.42	.18	.17	29.82***	1.00	1.81	
			Self-differentiation	Emotional cutoff	.33	.35	.10	.10	11.38***	1.54	1.85
				Emotional fusion	.29	.25	.20	.18			
Spouses' antenatal attachment	Quality	Self-differentiation	Emotional reactivity	.26	.37	.14	.13	20.63***	1.00	2.11	
			Psychological discomfort	Depression	-.65	-.50	.25	.25	45.73***	1.00	1.92
	Quantity	Self-differentiation	fusion with others	.36	.33	.09	.09	9.54***	1.54	2.01	
			Emotional cutoff	.23	.27	.14	.13				
			Emotional fusion	.32	.28	.18	.16				
			Psychological discomfort	Depression	-.54	-.31	.10				.09

*** $p < .001$

정서체계가 타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적게 받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태아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 집중도가 높았다. 이로써 배우자의 태아 애착의 집중 정도를 설명함에 있어 자아분화는 16%($F=9.54, p<.001$)의 설명력을, 심리적 불편감은 9%($F=14.25, 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각각의 회귀모델은 $VIF<10$ 이었고, Durbin-Watson의 수치는 2에 가까워 모두 적합한 회귀모델이었다(B.-R. Bae, 201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 심리적 불편감, 태아애착에 차이가 있는지와 자아분화 및 심리적 불편감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첫째, 배우자의 자아분화 수준은 정서적 단절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임신부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보다 남성의 자아분화가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J. Kim, 2007)와 일치하는 것이다. 임신 기간 동안 신체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불편감에 대해서는 임신부와 배우자 모두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임신부가 배우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태아애착의 경우, 애착의 질, 즉 애착 정도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지만, 태아에 대한 집중 정도에 대해서는 임신부가 더 높게 나와서 배우자보다 임신부의 태아애착이 더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Lorensen et al., 2004; Mercer et al., 1988; Ustunsoz, et al., 201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자아분화의 성별의 차이는 성별에 따른 정체감 형성의 차이가 있다는 C. Gilligan(1982)의 주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남성은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독립성을 강조하여 정체감을 형성하므로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관계지향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의 연결과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관계지향적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 타인의 정서표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더 몰두하는 경향을 가지며 이러한 경향이 임신부와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Gubbinns, Perosa, & Bartle-Haring, 2010; B.-Y. Na, H. Chung, 2008). 임신기에 느끼는 신체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불편감에 대해 임신부와 배우자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임신부가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임신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배우자보다는 임신부에게 신체

적,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임신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으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기간동안 자신의 몸 속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태아로 인해 더 많은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임신부에 비해 그 직접적인 변화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게 되는 배우자의 자아분화가 더 높아 이성과 감정의 분리 정도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나타내며, 대인관계에 있어 독립적이면서도 연결감, 친밀감 등의 균형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이 덜 발달한 것은 아니었다. 이 연구의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임신 후반기로 태동을 느끼는 때이므로 자신의 신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태아의 움직임을 항상 느끼므로 임신부가 배우자에 비해서는 태아에 대해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 애착의 양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비부모로서 자녀의 출생을 기다리고 부모됨을 준비하는 기간인 임신기의 태아에 대한 애정도와 관련해서 임신부와 배우자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직접 자신의 몸속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태아를 느끼며 임신부가 모성애를 키워가듯 배우자 역시 부성애를 키우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다. 소(少)자녀화 현상이 나타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프로그램이 유행을 하며 출산과정도 함께 하는 등 임신기부터 남성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도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 발달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둘째, 임신부의 경우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적 단절은 태아애착의 애정 정도와 집중 정도에 각각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타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고립되어 있고 친밀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아애착을 발달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인 임신부는 C. Gilligan(1982)의 주장대로 관계중심적이어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분화 도구의 하위요인 가운데 가장 애착의 개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친밀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정도를 통해 태아에 대한 두려움 없는 친밀감이 태아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하겠다. 배우자의 경우, 태아에 대한 애정 정도에는 유일하게 정서적 반응이, 태아에게 집중하는 정도에는 타인과의 융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타인이나 외부환경의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낮아 심리적으로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태아 애착에 대한 질이 높은 요인이었고,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되는 정도가 낮아 타인에 의해 영향을 덜 받는 것이 태아를 생각하고 집중하는 정도가 높은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C. Gilligan(1982)의 주장대로 관계성을 중시하는 여성과는 달리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특성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자아분화의 하위요인과 태아에 대한 애착 정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전 연구와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비록 자아분화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부모-자녀 간 애정적 유대의 세대 간 전이에서 자아분화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S.-H. Cho & H. Chung, 2009)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예비부모가 심리적 자원과 대인관계적 자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킨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는 태아에 대해 긍정적인 애착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심리적 불편감의 하위요인 가운데에는 우울만이 임신부와 배우자의 태아애착의 애정 정도와 집중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기의 우울감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McFarland et al., 2011)와 일치하는 것으로 태아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에 있어 우울은 위험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임신기의 우울이 출산 후 영아와의 애착관계 및 자녀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astani et al., 2005; Ross et al., 2003)도 있듯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인이다. 배우자의 우울과 태아애착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임신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우울이 출산 후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측한다. 따라서 임신부와 배우자의 우울을 감소시켜서 태아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태아애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임신한 부부의 우울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임신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우울검사를 권장하고 우울 증세가 보이면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예비부모의 우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임신한 부부의 불안은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임신부와 배우자의 경우 모두 불안과 태아애착의 질과는 상관이 있어, 불안이 높을수록 태아애착의 질은 낮았지만, 태아에게 집중하는 시간의 정도와는 각각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우울과 태아애착 간의 상관성보다는 낮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신부와 배우자의 경우 모두 불안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과 태아애착은 상관성이 없다는 선행연구(Stanton & Golombok, 1993)와 부분적

으로 일치하는 것이지만, 태아애착을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비교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신한 부부라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출산 이후 부모-자녀 정서적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태아애착에 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부족했던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진 연구라 하겠다. 또한 태아애착에 임신 부부의 개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온 분야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자아분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개인의 자아분화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R. B. Miller et al.(2004)의 권유에 따라 특정집단인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가 하위요인별로 태아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국내 유일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관련 변인에 대한 임신한 부부와 배우자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는 것과 그동안 규명되지 않았던 예비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변인을 분석하고 관심을 유도했다는 것은 신선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아분화와 태아애착은 모두 원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도 포함하여 세대간 전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한 부부의 일반적 배경, 원하는 임신의 여부, 배우자와의 관계, 생활스트레스 등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태아애착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 모델을 구축한다면 심도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이 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이므로, 무작위로 선정한 경우보다 심리적 불편감의 다양성이 덜 확보되었을 것이고 경제수준이 조금 낮기도 하여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여 이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lhusen, J. L. (2008). A literature update on maternal-fetal attachment.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37(3), 315-328.

- Arkell, H. (2014, September 11). My wife's pregnant, but I'm off work with morning sickness! Father-to-be claims to be first in UK to be signed off with sympathy symptoms. *Daily Mail*. Retrieved from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751715/My-wife-s-pregnant-I-m-work-morning-sickness.html>
- Bae, B. R. (201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1: Principles and practice*. Seoul: Chungnam.
- Bastani, F., Hidamia, A., Kazemnejad, A., Vafaei, M., & Kashanian, M. (2005).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the effects of applied relaxation training on reducing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in pregnant women. *Journal of Midwifery & Women's Health, 50*(4), 36-40.
- Bloom, K. C. (1995).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behaviors in pregnant adolescents. *Nursing Research, 44*(5), 284-289.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owlby, J. (1960). Grief and mourning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5*, 9-52.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3-35.
- Cho, S. H., & Chung, H. (2009).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djustment and parent-child affectionate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14*(1), 33-59.
- Chung, H., & Cho, E.-K. (2007). Korean self-differentiation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1), 19-46.
- Condon, J. T. (1993). The assessment of antenatal emotional attachment: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6*(2), 167-183.
- Condon, J. T., Corkindale, C. J., & Boyce, P. (2008). Assessment of postnatal paternal-infant attachment: Developmental a questionnaire instrument.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6*(3), 195-210.
- Cranley, M. S. (1981).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9*(5), 281-284.
- Derogatis, L. R. (2001). *Brief Symptom Inventory(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NCS Pearson, Inc.
- Derogatis, L. R., Lipman, R. S., Rickels, K., Uhlenhuth, E. H., & Covi, L. (1974). The Hopkins Symptom Checklists (HSCL): A self-report symptom inventory. *Behavioral Science, 19*(1), 1-15.
- Fawcett, J., & York, R. (1987). Spouse's strength of identification and report of symptoms during pregnancy and the postpartum. *Florida Nursing Review, 2*(2), 1-10.
- Field, T., Diego, M., & Hernandez-Rief, M. (2006). Prenatal depression effects on the fetus and newborn: A review.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9*(3), 445-455.
- Fisher, J. R., Hammarberg, K., & Baker, G. H. (2008). Antenatal mood and fetal attachment after assisted conception. *Fertility and Sterility, 89*(5), 84-89.
- Fonagy, P. (2001).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New York: Other press.
- Fuller, J. R. (1990). Early patterns of maternal attachment.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1*(4), 433-446.
- Gaffney, K. F. (1986). Maternal-fetal attachment in relation to self-concept and anxiety.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5*(2), 91-101.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a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ubbinns, C. A., Perosa, L. M., & Bartle-Haring, S. (2010). Relationships between married couples' self-differentiation/individuation and Gottman's model of marital interaction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2*(4), 383-395.
- Hart, R., & McMahon, C. A. (2006). Mood stat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o pregnancy.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9*(6), 329-337.
- Hjelmstedt, A., Widstrom, A. M., & Collins, A. (2006). Psychological correlates of prenatal attachment in women who conceived after in vitro fertilization and women who conceived naturally. *Birth, 33*(4), 303-310.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 York: W. W. Norton & Company.
- Kim, M. (2014). Stress, depression, and fetal attachment in pregnant women having infertility treatm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and Nursing, 20*(2), 163-172.
- Kim, Y. I. (2006). *The moderating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 Kozłowska, K., & Hanney, L. (2002). The network perspective: An integration of attachment and family system theories. *Family Process, 41*(3), 351-374.
- Kwon, M. K., & Bang, K. S. (2011). Relationship of prenatal stress and depression to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fetal grow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2), 276-283.
- Lee, W. O.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and single adults' self-differentiation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indgren, K. (2006). Relationship among maternal-fetal attachment, prenatal depression, and health practices in pregnancy.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4*(3), 203-217.
- Lorensen, M., Wilson, M., & White, M. (2004). Norwegian families: Transition to parenthood.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5*(4), 334-348.
- McFarland, J., Salisbury, A. L., Battle, C. L., Hawes, K., Halloran, K., & Lester, B. M. (2011). Major depressive disorder during pregnancy and emotional attachment to fetus.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4*(5), 425-434.
- Mercer, R. T., Ferketich, S., May, K., De Joseph, J., & Sollid, D. (1988). Further explor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fetal attachment.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1*(2), 83-95.
- Miller, R. B., Anderson, S., & Keala, D. K. (2004). Is Bowen theory valid? A review of basic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0*(4), 281-300.
- Na, B. Y., & Chung, H. (2008).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with parents, self-differentiation and fear of intimac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2), 155-168.
- Park, E. Y. (2002). *A similarity study on theory of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K.-P., Woo, S.-W., & Chang, M.-S. (2012). Validation study of brief symptoms inventory-18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507-521.
- Parloff, M. B., Kelman, H. C., & Frank, J. D. (1954). Comfort, effectiveness, and self-awareness as criteria of improvement in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11*(5), 343-351.
- Pearson, R. M., Evans, J., Kounali, D., Lewis, G., Heron, J., Ramchandani, P. G., O'Connor, T. G., & Stein, A. (2013). Maternal depression during pregnancy and the postnatal period: Risk and possible mechanisms for offspring depression at age 18 year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sychiatry, 70*(10), 1312-1319.
- Peleg, O., & Yitzhak, M. (2011). Differentiation of self and separation anxiety: Is there a similarity between spouse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3*(1), 25-36.
- Ross, L. E., Evans, S. E., Sellers, E. M., & Romach, M. K. (2003). Measurement issues in postpartum depression part I: Anxiety as a feature of postpartum depression.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6*(1), 51-57.
- Siddique, A., Haggliif, B., & Eisemann, M. (2000). Own memories of upbringing as a determinant of prenatal attachment in expectant women.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18*(1), 64-74.
- Skowron, E. A., & Dendy, A. K. (2004). Differentiation of self and attachment in adulthood: Relational correlates of effortful control.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6*(3), 337-357.
- Stanton, F., & Golombok, S. (1993). Maternal-fet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following in-vitro fertiliza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Obstetrics and Gynecology, 14*(2), 154-158.
- Threthowan, W. H., & Colon, M. F. (1965). The couvade syndrom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1*(470), 57-66.
- Ustunsoz, A., Guvenc, G., Akyuz, A., & Oflaz, F. (2010). Comparison of maternal and paternal-fetal attachment in Turkish couples. *Midwifery, 26*, e1-e9.
- Van Bussel, J. C. H., Spitz, B., & Demyttenaere, K. (2009). Anxiety in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ole of ma-

- ternal orientation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4(1-3), 232-242.
- Van den Bergh, B., & Simons, A. (2009). A review of scales to measure the mother-foetus relationship.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7(2), 114-126.
- Wapner, J. (1976). The attitudes, feelings and behaviors of expectant fathers attending Lamaze classes. *Birth and the Family Journal*, 3(1), 5-13.
- Weaver, R. H., & Cranley, M. S. (1983). An exploration of paternal-fetal attachment behavior. *Nursing Research*, 32(2), 68-72.
- White, M. A., Wilson, M. E., Elander, G., & Persson, B. (1999). The Swedish family: Transition to parenthood.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3(3), 171-176.
- Wilson, M. E., White, M. A., Cobb, B., Curry, R., Greene, D., & Popovich, D. (2000). Family dynamics, parental-fetal attachment and infant tempera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1(1), 204-210.
- Yarcheski, A., Mahon, N. E., Yarcheskui, T. J., Hanks, M. M., & Cannella, B. L. (2009). A meta-analytic study of predictors of maternal-fetal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5), 708-715.
- Yoon, J.-Y., & Kang, M.-H. (2004). Development of pregnant women-fetus interaction program and its effects on enhancing mother-newborn baby interact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7(2), 157-175.

Received: January 15, 2015

Revised: March 16, 2015

Accepted: March 18, 2015